

과학기술과 숲의 문명은 인류역사 수레바퀴의 두 축이다

인류의 역사화와 더불어 발전한 과학과 기술은 오늘의 인류문명을 탄생케한 원동력이다. 더욱이 20세기의 그 험란했던 과학과 기술의 개발은 인류가 수천년에 걸쳐서 이룩한 것 이상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물질문명의 발전을 가져왔고, 21세기에도 그 이상의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을 예측하고 있다. 과학기술주의는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류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허만 칸(Herman Khan)과 같은 낙관적 과학기술주의자들은 인간의 천재성이 끊임없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을 유도하여 현대 물질문명이 직면한 자연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문제들을 극복할 것이라는 신념 하에 미래에도 인간중심적 지구사회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한 경제 성장은 필연적으로 대규모의 화석에너지를 포함한 자연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즉,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발표에 따르면 지구사회는 하루 평균 화석에너지의 소비로 대기중에 1천5백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약 300km²의 열대림이 농지확보와 목재생산을 위하여 파괴되고, 70여종의 동식물이 멸종되고, 200km²의 새로운 사막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무분별한 자원이용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구온난화, 엘니뇨현상, 기상이변, 물

부족과 같은 환경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지구라는 환경생태계의 수용한계를 넘겨 지구사회의 지속성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교의 목소리가 거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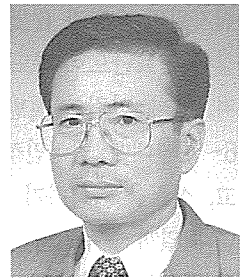
이러한 관심과 우려는 20세기 말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이어졌으며, 여기에는 라우환경회의의 산림원칙성명,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우리가 언론을 통하여 자주 듣게된 국제규약들이 포함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나무와 숲의 보존과 관리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에 따라, 나무와 숲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그 어느 시대보다 높아지고 있어 무척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

인류문명의 발달과정을 되돌아 보면, 숲은 인류사회의 경제, 환경, 문화를 아우르는 가장 친숙한 자연자원으로 문명의 발달과 궤적을 같이 했다. 수렵채취시대에는 삶의 보금자리였고 식량자원의 보고였으며, 농경정착의 시대에는 농경지를 일구기 위한 원천이고, 소금, 청동기, 철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의 공급원으로서 농업문명의 발달을 있게 한 근원이었다. 나일강유역의 이집트문명이 그러하고, 유프라테스·티그리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문명, 인더스강 유역의 인도문명 그리고 황하문

과학기술의 시대인 현재에도 숲은 문명의 한 축을 지탱하는
경제·환경·사회·문화적인 자원으로서 인간의 가장 소중한 친구요 자산이다.
정부는 21세기 새로운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사람과 숲이
상생(相生) 공존하는 산림복지국가 구현'을 내걸고 아낌없고 풍류가 담긴,
그리고 우리 고유의 문화가 숨쉬는 지난날의 금수강산으로
재생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金容漢
(산림청 차장)

명도 숲을 모태로 번창할 수 있었다. 숲으로부터 건축재나 연료원을, 그리고 정보축적을 위한 종이 생산의 기초재료가 공급되고, 또한 숲에 의하여 수 자원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물의 양이 조절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명의 발달이 가능했을 것으로 단언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시대인 현재에도 숲은 문명의 한 축을 지탱하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인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숲은 목재 등의 임산물을 공급하여 우리의 생활을 지탱하는 경제자원이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환경자원일 뿐만 아니라, 휴양과 정서를 순화하고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사회·문화적 자원으로서 우리사회에 매우 다양하고 유용한 편익과 혜택을 주는 어쩌면 인간의 가장 소중한 친구요 자산이라는 자각과 인식이 국민 속에 크게 확산되고 있다. 지구생태계라는 큰 차원에서 볼 때도 숲은 지구환경의 지지체이고, 생물다양성의 산실이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지구온실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그리고 사막화의 저지와 부족한 수자원의 확충,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국제사회에 널리 인식되고 있다.

자연과 문명의 상호관계를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경구가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라는 경구가 그것이다. 이 경구는 인류문명의 발달과 숲

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인간이 산림을 잘못 관리하면 문명은 종말을 맞이하고 사막만 뒤에 남긴다는 뜻이다. 이 경구는 19세기 프랑스의 낭만주의 작가이며 역사학자인 샤토브리앙(Chateaubriand)이 처음 설파하였으며, 「역사의 연구」의 토인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에 의하여 자주 인용되고 있는 명구이다.

실제 인류문명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앞서 말한 숲을 딛고 일어섰던 인류 초기의 4대 농업문명들과 중앙아메리카의 열대림을 배경으로 융성했던 마야·잉카문명도 늘어나는 인구의 부양과 성장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해 주변의 숲을 과도하게 벌채하고, 가축을 무분별하게 방목함으로써 점차 황폐화되었고, 결과적으로, 토양의 유실과 수자원의 고갈로 이어져 농업기반이 상실되었으며, 중국에는 문명의 몰락(사막화)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역사 이래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 천연림의 형태로 존재하던 숲의 3분이 1이 경작이나, 정착, 연료나 목재생산을 위하여 사라졌으며, 지금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세계 곳곳에서 산림의 감소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인류문명의 앞날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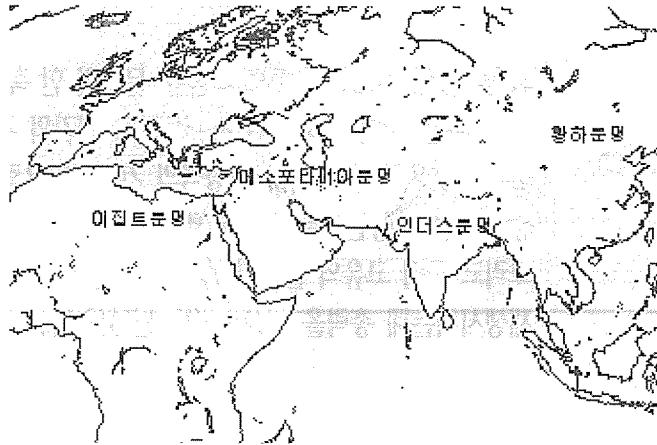
산림 경영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다

우리나라의 산림도 일제 식민지정책 하에서의 산

림자원의 수탈과 6.25전쟁, 전후 사회혼란기의 극심한 연료난으로 과도한 산림벌채와 훼손으로 이어져, 한때 산림의 절반 이상이 황폐하였다. 그러나 6~70년대에 범국민적으로 황폐한 산림을 복구하고, 산림을 녹화하기 위하여 온 힘을 쏟은 결과 80년대 말까지 우리의 전 산림은 완전히 녹색으로 다시 변모하게 되었고, 이는 FAO 등의 국제사회로부터 대면적의 황폐지를 성공적으로 녹화한 모범사례로 인정받을 정도로 우리 국민 모두의 자부심으로 돌려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변화된 아래와 같은 여러 여건에 합당하고, 한 단계 진일보한 산림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우리의 산림도 개발도상국의 여러 나라들과 같이 경제성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년 50km² 내외가 공장, 택지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토의 65%에 해당하는 산림의 85% 이상이 많은 손길을 필요한 어린나무이고, 많은 국민이 산림을 휴양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20세기 말에 떠오른 지구환경과 산림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대에 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계 각층과의 열띤 토론과정을 통하여, 21세기 새로운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사람과 숲이 상생(相生)·공존(共存)하는 산림복지국가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21세기 산림비전'을 최근 확정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보전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새로운 21세기 산림정책은 범지구적 산림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또는 '생태계 경영 (Ecosystem Management)'에 바탕을 두고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산림이 우리 사회에 주는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인 가치가 골고루 발휘되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가 생성되며, 온갖 동식물과 사람이 공생(共生)·공영(共榮)하는, 그야말로



생명을 가능케하고, 삶을 충족시키며, 아름답고 풍류가 담긴 우리고유의 문화가 숨쉬는 지난날의 금수강산으로 재생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가 자주 듣고있는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의 개념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연자원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한 아프리카의 작은 부족의 속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물질문명에 익숙해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연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연과 상생(相生)·공존(共存)하는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데는 상당부분 무신경하거나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21세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앞서 자연과 산림생태계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먼 조상들이 가졌던 자연관에서와 같이 자연을 질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더불어 공존하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고 가꾸어서 미래세대에까지 전달되도록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문화사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21세기에는 다른 무엇보다 이를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결집해야 하지 않을까? ⑤7